

2016년은 '공유' 시대

'부산행' 시작 '밀정' '도깨비' 등 스크린·안방극장서 종합무진

tvN 금토드라마 '도깨비' 대사를 빌려 표현하자면, 우리는 "뉴턴의 사과처럼 사정없이 그에게 굴러떨어졌다."

이 겨울밤 우리를 매혹한 그의 정체는 '공개비'(공유와 도깨비를 합친 말) 공유(37)다.

공유는 올해 안방극장과 영화관에서 고른 활약을 펼치면서 별 중의 별로 등극했다. 그가 이끈 '부산행'은 올해 유일한 천만 영화로 남았고, '도깨비'는 드라마 역사를 새로 쓰는 중이다.

◇'남과 여'·'부산행'·'밀정' 내리 세 작품서 활약=2014년부터 2년간 이렇다 할 공개적인 활동이 없었던 공유는 휴지기를 만회 하려는 듯 올해 세 편의 영화를 내리 선보였다.

대중에게 공유를 가장 뚜렷이 각인시킨 작품은 '부산행'이다.

그는 딸과 함께 오른 부산행 기차에서 좀비들의 습격을 받는 펀드매니저를 연기했다.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던 인간이 극한 상황에서 점점 변화하는 모습을 공유는 알맞은 강도로 소화해 냈다. 결혼도 하지 않은 그가 부성애를 이룰까 없이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기우였다.

천만 명이 본 이 영화는 로맨틱 가이, 청춘스타 이미지가 강했던 공유에게 배우로서의 무게감을 확실히 실어주었다.

공이여 개봉한 '밀정'에서도 750만 명 관객이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그는 총 무로 흥행 배우로 자리잡았다.

일제강점기 무장독립운동단체인 의열단과 밀정을 다룬 이 영화에서 공유는 송강호와 기대 이상의 호흡을 보여줬다.

앞서 두 작품만큼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전도연과 함께 만든 차정 멜로 '남과 여'도 공유의 필모그래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다.

◇'커피프린스' 이후 영화서 다양한 도전=2001년 KBS 2TV 드라마 '학교'로 데뷔한 공유는 6년 뒤 MBC TV '커피프린스 1호점'이라는 출세작을 만난다.

남장한 고은찬(윤은혜)에게 설레는 마음을 주체 못하다 "내가 남자건 여자건 상관 안 해. 가보자. 갈 때까지"라며 패기 있게 고백하던 최한결은 뜻 여성의 마음을 제대로 흔들여 놓았다.

이듬해 차기작이 아닌 입대로 길을 튼 공유의 전역 후 행보는 예상 밖이었다.

그는 로맨스 코미디 영화 '김종욱 찾기'(2010)로 달콤한 매력을 뽐내는가 싶더니, 군 복무 시절 읽은 공지영 소설의 영화화에 직접 나섰다. 청각 장애인 학교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하면서 2011년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영화 '도가니'다.

2년 뒤 공유는 조국으로부터 버림받은 북한 특수요원으로 등장해(영화 '용의자') 거칠고 남자다운 매력을 뽐아냈다.

이처럼 스크린에서 다채로운 얼굴을 보여주면서 연기 폭을 넓혀가던 공유는 유독 드라마 작업만은 멀리했다. 흥정은·홍미란 작가가 집필한 KBS 2TV '빅'(2012)에 출연한 것이 전부였다.

최고의 흥행 작가인 김은숙마저도 공유를 만나기 위해 5년을 기다려야만 했다.

◇비운의 도깨비로 변신 성공=제2 전성기='부산행'과 '밀정'의 성공으로도 만족하지 못한 것일까.

'도깨비'의 공유는 산천초목도 떨 법한 용감무쌍한 고려 장군으로 눈길을 사로잡더니, 왕에게 살해당하고서도 온전히 죽지 못하는 비운의 도깨비로 시청자들 마음을 아리게 했다.

몸에 같이 꽃힌 채 어느덧 935살이 된 도깨비는 저주를 풀어 줄 도깨비 신부, 19살 지은탁(김고은)을 만난다.

김은숙 작가가 창조한 전지전능한 캐릭터 자체도 매력적이지만, 공유는 그 눈빛과 작은 움직임 하나로도 쓸쓸함, 아련함을 뽐내며 분위기를 주도한다.

'커피프린스' 시절의 풋풋함은 달하지만, 30대 후반의 숙성된 매력이 더해지면서 근사한 멋쟁이 신사 도깨비가 탄생했다.

공유는 그러다가도 저승사자 역의 이동욱과 티격태격할 때는 개구쟁이 소년 같은 모습으로 시청자들 무장해제 하게 한다.

20부작인 '도깨비'는 이제 겨우 6회를 방송했다. '도깨비' 애청자와 공유의 팬들은 아직 환호할 날이 더 많은 듯 하다.

"원조 납신다 길을 비켜라"

1세대 S.E.S·신화 새해 출격 준비 완료

새해 벽두부터 1세대 아이돌을 대표하는 남녀 그룹이 나란히 출격해 가요계의 시작을 알린다.

내년 데뷔 20주년을 맞아 14년 만에 컴백한 S.E.S(바다, 유진, 슈)가 1월 1일 0시 스페셜 앨범의 선공개곡을 선보인 뒤 2일 낮 12시 전곡을 음원사이트에 공개한다.

또 내년 데뷔 19주년을 맞는 최정수 아이돌 그룹 신화가 1월 2일 0시 정규 13집 '언체인징'(UNCHANGING)을 발표한다.

1997년 데뷔한 S.E.S는 2002년 공식 해체 이후 올해 14년 만의 재결성을 알리며 공연과 앨범을 포함한 20주년 기념 프로젝트 '리멤버'(REMEMBER)의 시동을 걸었다.

앨범 출시에 앞서 오는 30~31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대강홀에서 단독 콘서트 '리멤버, 더 데이'(Remember, the day)를 열고 팬들과 재회한다.

S.E.S와 같은 소속사에서 1년 늦게 데뷔한 신화는 공백없이 팀을 탄탄히 유지해 후배들의 롤 모델로 꼽힌다. 이들이 지난 17~1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코엑스에서 연 '2016 신화 라이브-언체인징' 콘서트에는 총 2만2000 관객이 모여 최정수 그룹의 간재를 보여줬다.

멤버들은 이 공연에서 정규 13집 발매일을 발표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과 더욱 가깝게 지내겠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달 13집 '언체인징'의 파트.1 앨범으로 컴백을 예고한 이들은 신화를 상징하는 주황색을 모티브로 한 팬송 '오렌지'로 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파트.1의 5곡이 겨울 감성을 풍기는 따뜻하고 달콤한 노래들이라면, 13집에 추가되는 신곡 5곡은 신화의 성숙한 이미지를 트랜디한 사운드로 구현한 노래가 주를 이룬다.

신화컴퍼니 측은 "전반적으로 곡마다 주제가 뚜렷하고 멜로디 라인을 살린 곡들"이라고 설명했다.

출연 교체 논란 송지호·김종국

"런닝맨" 남은 녹화분 출연료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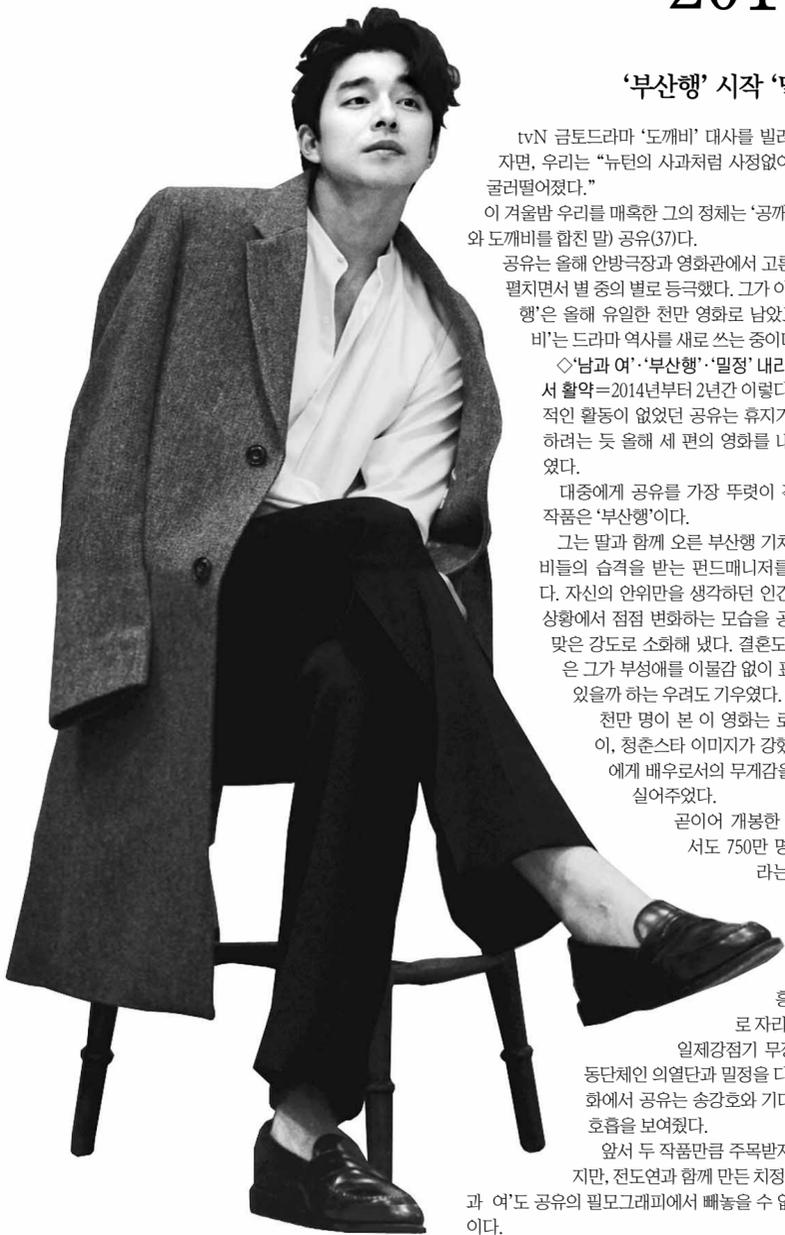
SBS TV 예능 프로그램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의 출연자 교체 논란에 휘말렸던 배우 송지호와 가수 김종국이 남은 출연료를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지호 소속사 관계자는 19일 "송지호가 김종국과 함께 다음 주부터 내년 2월 종영 전까지 진행될 '런닝맨' 녹화분의 출연료를 모아 이웃을 위해 쓰기로 했다"면서 "기부 시기나 방법 등은 모두 미정"이라고 말했다.

김종국 측도 "두 사람이 지난주 일도 있었던 만큼 출연료를 좋은 일에 쓰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송지호와 김종국 측은 지난주 '런닝맨'의 새 시즌 출범과 자신들의 하자 확정 사실을 언론 보도로 먼저 접했고, 이에 온라인에서는 '런닝맨' 제작진을 비판하는 여론이 크게 일었다.

새 시즌에 합류할 계획이었던 강호동마저 출연 의사를 번복하면서 결국 '런닝맨'은 내년 2월 종영하게 됐다.



TV 프로그램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체나 불발)	10 KBC 모닝와이드 3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 연속극 (아침 쏘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특별생방송 나눔이 희망입니다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월화드라마 (화랑)(재)	00 월화드라마 (불아성)(재)	00 TV블로그 꿈지락 05 특선다큐 (그래도 행복한 학교 가는길) 55 닥터 365(재)
12	00 KBS 뉴스 12 30 특별생방송 나눔이 희망입니다	05 생생정보 스페셜 40 살림하는 남자들(재)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꿈지락 55 세상발견 유레카
1			20 문화사색 (재)	55 닥터 365
2	0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질문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5 내꺼야 풀록 30 꾸러기 식사교실	00 영재발굴단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2 30 TV유치원	00 MBC 뉴스 10 특? 특! 키즈스쿨 55 응까소나타 2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MBC 일일특보 기획 (황금주머니)(재)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제보자들 (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목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고행전문록 남도에 살아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시사현장 맥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 24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기획 창 55 숨터 미래유산 100년 후 보물찾기	00 월화드라마 (화랑)	00 월화드라마 (불아성)	00 월화드라마 (남만덕터 김사부)
11	00 KBS 뉴스라인 40 콘서트 필	10 살림하는 남자들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	30 2016 국제공동제작 박 시티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24 15 MBC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e 생활영어 05:30 세계전문록 아틀라스 (아시아의 희귀 풍습 불의 마을 흥완촌)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이다 비고 07:30 로보카 폴리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덩동명 유치원1~2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09:00 방귀대장 뽕뽕이 09:15 출동! 슈퍼핑크 09:30 이입! 스페이스 정글	09:40 부모 (위대한 엄마)(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연근 유지정조림과 무말랭이 오징어무침)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큐(재) 12:45 숨은 한국 찾기(재) 13:35 뷰티풀 코리아 13:40 출겨운 수학 EBS MATH 13:50 그림을 그려요? 13:55 캐니멀
14:25 정글에서 살아남기(재)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피터래빗 15:20 우주탐험가 찻 15:35 오솔 상지2 15:45 코코몽 3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16:30 부릉부릉 브루미즈(재) 16:45 덩동명 유치원1~2(재) 17:30 로보카 폴리(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특! 특! 보리나니1~4 19:00 소피 루비 19:30 EBS뉴스	19:50 극한직업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대지의 끝을 가다, 칠레 2부 시간을 품은 섬, 칠레) 21:30 한국기행 (톡 쏘는 인생 사이드 투어 2부 우리는 유쾌한 사이드) 21:50 EBS 다큐프라임 (중앙아시아, 살아남은 야생의 기록) 22:45 리얼극장-행복 23:35 미스터리 휴먼 다큐 24:10 특집 국민공감콘서트 대한민국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0일 (음 11월 22일 丙子)

子	48년생 뚜렷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60년생 잡자고 있는 편이 더 다탈다. 72년생 매우 궁금에 왔던 것이 명백히 드러나서 속시원하겠다. 84년생 단순한 관점으로 바라보다면 생경한 관계가 될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55, 19	午	42년생 흔들리지 않는 안목과 독창성이 요구되는 판도이다. 54년생 자류부터 살펴봐야 명료한 판단이 선다. 66년생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되는 요인이 발생한다. 78년생 불만족스럽다면 원인을 요로부터 면밀히 살펴봐야겠다. 행운의 숫자 : 97, 45
丑	49년생 상공의 문턱으로 들어서고 있다. 61년생 하등의 문턱도 되지 않을 것이니 기탄없이 진행하자. 73년생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85년생 사람을 쉽게 믿는다는 것과 미덕은 별개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6, 66	未	43년생 잃었던 것을 찾거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다. 55년생 전환을 이끄는 확실한 암시가 있을 것이다. 67년생 실마렸던 것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리라. 79년생 전방위적으로 살펴지 않으면 허점투성이가 된다. 행운의 숫자 : 22, 83
寅	50년생 알려져 있는 것이 실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니라. 62년생 기다려 왔던 소식을 접하게 될 것이다. 74년생 대부분 양호하니 약간만 손질하면 된다. 86년생 구체적인 아어만 실효성이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98, 96	申	44년생 쌓였던 걱정이 일거에 풀리는 듯 할 것이니라. 56년생 치열함과 집요함이 성공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68년생 과욕은 퇴보의 수렁으로 끌어들이는 주인이 될 것이다. 80년생 길조가 솟아나면서 만사여의해리라. 행운의 숫자 : 34, 06
卯	51년생 원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63년생 숨은 속 뜻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느니라. 75년생 아무지개 다잡아야 할 시기이다. 87년생 불협화음이 보인다면 주관적인 면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대처해야 좋다. 행운의 숫자 : 48, 90	酉	45년생 반복하고 있는 것이 능사는 아니니 변화를 도모해 보자. 57년생 이제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절실한 시점에 와 있음을 알라. 69년생 맞추어 나가야 할 때다. 81년생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면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8, 88
辰	40년생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 52년생 똑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전혀 개의치 말라. 64년생 쉽게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76년생 너무 민감해져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겠다. 88년생 변화하는 형세이니 신속히 대응하자. 행운의 숫자 : 72, 32	戌	46년생 한 순간에 절호의 찬스가 지나간다. 58년생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니 매우 길하다. 70년생 다 되었고 여겼을 때가 가장 취약한 법이니 방심은 금물임을 알라. 82년생 자기 발전으로 이룰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80, 02
巳	41년생 지체하지 말라. 53년생 배려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65년생 알고도 모르는 척 해야 할 일이 생길 것이니 눈 딱 감고 있이라. 77년생 불가피하다면 차선책을 택하라. 89년생 속을 들여다볼수록 구조가 복잡하다. 행운의 숫자 : 31, 84	亥	47년생 부분에 한정되므로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 59년생 약하게 대응한다면 잃게 될 수도 있다. 71년생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협조하는 것이 좋다. 83년생 일시적인 과욕으로 인해 기존의 성과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자. 행운의 숫자 : 36, 1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